

	대 덕 구 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20. 4. 30.(목)	
		제공부서	에너지경제과	
		연락전화	608-5381	
		담당자	구본엽	
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 아이템 608-6602, ptking2@korea.kr			사진여부	○

대덕구, 130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노동정책’ 추진 박차

조례제정 및 각종 노동관련 프로그램 운영,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오는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대전·대덕 산업단지에 총 1200개 업체 2만8000명이 근무, 지역 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법제정과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대전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허찬영)를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을 비롯한 각종 컨설팅 지원으로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일하기 좋은 도시,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 해고 없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지난해 8월 구청에서 열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 모습.]